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김 수 리* 이 재 창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교 남녀학생 총 24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관련 부모 지지 척도를 번안하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 진로사고검사, 진로성숙도 검사의 태도 척도와 함께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직·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통해 진로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

* 교신저자 : 김수리,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빌딩 한국청소년상담원
Tel : 02-2231-5191, Email : suri@kyci.or.kr

진로이론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및 진로 발달에 관한 주요 이론들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는 교육적 발달과 진로 발달 영역에서 자녀를 돕고 싶어하며(Otto, 1984; Palmer & Cochran, 1988), 청소년들은 교육적 발달 및 진로 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 부모에게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밝혀졌다(Kotrlik & Harrison, 1989; Sebold, 1989).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명자, 2003).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인지이론은 진로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개인, 환경 요인들에 초점을 둔다(Lent, 2005). 선행 연구들은 모든 민족 집단에서 청소년들의 환경적 조력 중, 특히 부모의 지지가 사회적 장애물들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항하여 완충물로서 작용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들의 진로관련 의사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 가치를 사회화 시키는 동시에(Astin, 1984), 학업적·직업적으로 유능한 존재라는 본인의 기대를 사회화 하는 역할을 한다(Eccles, 1994). 후기 청소년 시기의 중심적인 과업이 독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용, 공감 그리고 지지는 이 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Avison & McAlpine, 1992; Grotevant & Cooper, 1986; Powers et al., 1989). 청소년들은 성인에 대한 의존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의존하는 대상의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ompas, 1987). Dreher와 Dreher(1985)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사회적 발달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하면서도, 직업 준비와 관련된 과업들은 개인적 활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조력이 결합되어야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외적 도움은 정보와 매체, 선배, 성인, 또래들과 부모님에 의한 도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적 준비 활동은 정보 수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의 능력, 흥미, 목표, 목표 달성 전략을 고려하는 내적 탐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기회의 탐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친구들과 대화하기, 인터넷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험 쌓기 등과 같은 매우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곤 한다.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학교에서 직장에 취업하기 1년 전의 청소년들 중 자신이 흥미와 직업 기회에 대해 더 나은 정보나 지지를 가졌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탐색이 더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의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과정에서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은경, 2001). 초기 진로선택 연구들이 개인 변인들과 진로 결정과의 관계들을 주로 강조했다면(손은령, 2001), 이후 진로 선택 관련 연구들은 개인 변인 뿐 아니라 사회배경변인이 진로결정과 목표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Lent, Brown, & Hackett, 1994). Bandura(1999, 2000)와 Lent 등(2003)은 효능감 변인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지지나 사회 장벽과 같은 맥락변인들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때,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관계를 매개함을 주장하였다. Bandura(1999)는 맥락 변인들이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Lent 등(2003)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즉, 한 개인이 진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지각된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최종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인 진로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지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Kush & Cochran, 1993; O'Brien et al., 2000), 특히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진로의사결정에 관여하고(Kush & Cochran, 1993),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흥미를 추구하도록 하며(Lopez, Lent, Brown & Gore, 1996), 특정한 진로 흥미를 위해 교육적으로 준비하는 효능감(Lapan, Hinkelman, Adams & Turner, 1999)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적 행동 증진에 공헌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 주목해왔으며, 온정적이고 지지적, 상호호혜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의 독창성, 반응성, 성숙성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racke & Schmitt-Rodermund, 2001).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의 발달 기회는 청소년의 환경 내에 있는 중요한 성인들에 의해 제공되며(Lent et al., 1996), 부

모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 정보의 제공자(Lapan et al., 1999)라고 알려져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청년기까지 구성된다고 하면서, 효능감 정보의 네 가지 원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화하였다. 원천들은 자신의 과거 수행 성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관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언어적 격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감정의 경험 및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행 성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된다(Bandura, Adams, & Beyer, 1977). 일반적으로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낮게 한다. 효능감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효능감 신념은 더욱 약화된다. 실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되었을 경우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되며, 회복력 있는 효능감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효능감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이다.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마찬가지로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노력도 덜 하게 된다(Brown & Inouye, 1978). 셋째,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해주는 언어적 설득은 적절한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부여된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어적으로 설득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회의를 빠지거나 개인적 결함에 몰두하기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동기화 되고 그 노력을 지속하기 쉽다(Litt, 1988; Schunk, 1989). 넷째,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다.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과 긴장을 수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상처받은 신호로 해석한다.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은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정서적 각성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진로상담의 중요한 과정이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이재창, 1988). 진로영역에서 인지는 진로관련 정보의 처리와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사고는 진로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진로문제 해결이나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Peterson, Sampson과 Reardon(1991)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를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이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에 의하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 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문제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로선택이 두 가지 정보 즉, 개인의 인지로 해석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다소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자기정보(self-knowledge)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과 개념으로 구

성되는 직업정보(occupational-knowledge)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정보와 직업정보간의 서로 다른 변동폭은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이 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고 이를 기억하는데 방해가 된다(Sampson et al., 1996).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이는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 시킴으로써 순환과정을 만든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끊겨야 하며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Sampson et al., 1996).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1996)의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는 진로와 역기능적 사고를 연관하여 개발한 것으로 세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은 진로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개인의 곤란수준을 측정하며, 둘째,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은 대부분의 불안과 연관되어 있으며 진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 개인이 가지는 곤란수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은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우선 순위와 중요한 타인의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곤란수준을 평가하는 하위척도이다.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시키며, 미결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Lusting & Strauser, 2002;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역기능적 사고는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며 진로 의사결

정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Dowd, 1995). Corbishley와 Yost(1989)는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흥미발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진로준비를 방해한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 진로발달의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발달적 이론이 대두되면서 진로관련연구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nzberg, Ginsburg, Axelrad 및 Herma(1951), Super(1953), Criets(1961), Gottfredson(1981)에 이르는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며,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의 진로성숙을 강조한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진로발달의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로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내담자가 가진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 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1개 광역시의 중학교 남녀 학생을 임의 표집하였다. 총 6개 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130명(53.1%), 여자 115명(46.9%)이었다.

연구도구

진로 관련 부모 지지 척도

Tur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Ergun, Damla(2003)이 제작한 ‘진로 관련 부모 지지 척도(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개발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들이 교육적·직업적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하며, 진로관련 모델링, 정서적 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와 같은 4개의 하위 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urner 등(200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고한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진로관련 부모 지지 .8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진로관련 모델링 .82, 정서적 지지 .85, 도구적 조력 .78, 언어적 격려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 관련 부모 지지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6, 하위영역별로는 진로관련 모델링 .75, 정서적 지지 .60, 도구적 조력 .62, 언어적 격려 .7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

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F)를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척도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 4개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경(2001)은 Cronbach의 α 계수를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Cronbach의 α 계수는 목표선택 .68, 직업정보 .60, 문제해결 .81, 미래계획 .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79로 나타났다.

진로사고 검사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는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1996)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한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 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ampson et al., 1996). 이 검사는 의사결정혼란 14문항, 수행불안 10문항, 외적 갈등 5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재창 등(2003)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하위척도의 Cronbach의 α 를 의사결정 혼란 .80, 수행불안 .65, 외적 갈등 .63, 진로사고 총점 .8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전체 진로사고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84, 의사결

정 혼란 .65, 외적 갈등 .81, 수행불안 .56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검사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태도척도(attitude scale)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로선택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옥(1989)이 번안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연구와 같이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김현옥(1989)은 24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위척도별로 보고한 Cronbach의 α 를 평균 .62(최저 .46, 최고 .69)로 보고하였고, 김봉환(1997)은 사범대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의 α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전체 진로성숙도 .69, 결정성 .69, 관여성 .57, 독립성 .65, 성향 .59, 타협성 .7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남녀 중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9.0과 AMO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인간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들의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 상관계수는 표 2로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부모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구조모형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구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검증모형은 기각되었지만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모형은 자료를 완벽히 설명한다)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사고가 매개하는 검증 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검증 모형 결과, TLI, CFI, RMSEA 지수를 고려했을 때 보통 정도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검증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직접 효과($\beta=.602$),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부적인 직접

표 1.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의 평균·표준편차

변인	전체(N=245)		
	M	SD	
부모 지지	도구적 조력	23.11	5.61
	진로 모델링	22.93	6.97
	언어적 격려	19.20	4.04
	정서적 지지	17.07	4.39
	전체	82.31	16.01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36.59	8.12
	직업정보	19.22	4.43
	문제해결	9.11	2.46
	미래계획	14.85	3.59
	전체	79.78	15.53
역기능적 진로사고	의사결정혼란	28.58	7.99
	수행 불안	24.71	5.60
	외적 갈등	11.53	2.93
	전체	64.82	14.68
진로성숙	결정성	25.41	2.86
	관여성	27.87	4.86
	독립성	27.78	4.13
	성향	26.60	5.34
	타협성	18.61	2.65
전체	126.29	13.84	

표 2. 변인간 상관

구분	1	2	3	4
1 부모 지지	1.00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98**	1.00		
3 역기능적진로사고	-.125*	-.273**	1.00	
4 진로성숙	.060	.357**	-.5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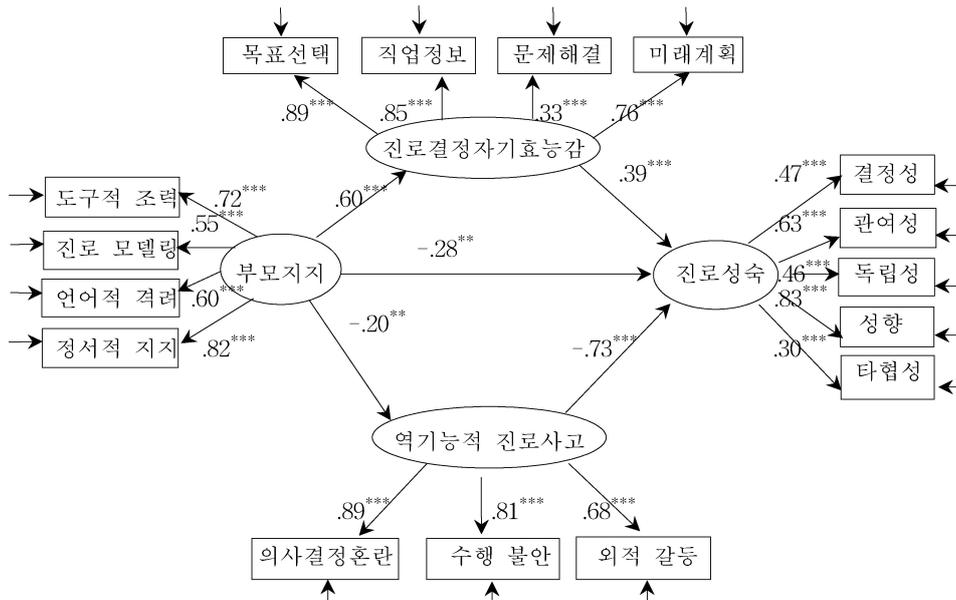


그림 1. 검증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TLI	GFI	RMSEA
검증 모형	279.306	99	6.758	0.858	0.876	0.086

효과($\beta = -.204$)를 나타냈다. 진로성숙에 대해 부모 지지는 부적인 직접 효과($\beta = -.284$)를 나타냈다. 진로성숙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정적인 직접 효과($\beta = .389$),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부적인 직접 효과($\beta = -.733$)를 보였다. 부모 지지는 진로성숙에 정적 간접 효과($\beta = .383$)를 보여 전체적으로 정적 효과($\beta = .100$)를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높게 나타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는 정적 영향을 주며, 진로성숙을 방

해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살펴봄으로써 진로상담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세, 내담자가 진로성숙을 위하여 교정하여야 할 진로 사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과정에 부모의 지지가 효능감 또는 역기능적 사고

에 따라 진로성숙에 주는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성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협에 처한 중학생들의 진로결정 효능감에 부모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Turner & Lapan, 2002; Turner et al, 2003). 부모 지지와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 확신 및 의사결정이 부모의 의견과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성(이재창 등, 2002)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지지와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독립성과 부모 지지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타협성은 부모 지지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독립성과 부모 지지간의 부적 상관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란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정은희(199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성숙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진로 효능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기학 등(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태도적 독립이 역기능적 사고와

관련이 없고, 심리적 독립은 진로관련 사고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이 있으며, 기능적 독립이 역기능적 사고와 부적 관계가 있다고 밝힌 고향자 등(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성숙은 실제생활에서 겪는 진로 문제를 부모의 도움없이 스스로 다루고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문제해결과 실행능력을 갖추고 부모와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가지면서 기능적으로 진로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력을 미쳤다. 높은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감소시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적 부모 행동이 청소년의 정보 탐색 활동을 촉진하며, 더 나은 직업 기회와 정보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효능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대되었다는 Kracke(2002)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학령기 및 취업 변화를 겪는 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Trusty, 1996)을 활용하여 부모들이 청소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녀의 발달적 과업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부모 지지의 형식이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당히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정도는 낮다.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에 관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수행 불안의 정도를 낮춰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정도가 낮은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수월하게 해나간다.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과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여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확고히 하고, 진로관련 탐색 활동을 통하여 진로 목표를 선택하고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진로관련 준비를 촉진시키고, 더 나은 진로 성숙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기능적인 진로사고를 촉진시켜 진로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진로 탐색 및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가로막히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들의 독립적인 행동 및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 진로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선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미래 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진로 효능감을 신장시킨다. 즉, 부모가 진로 관련 지지를 제공하여 유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진로 준비를 수행하게 하고,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능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성숙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칭찬과 격려, 부모의 직업 역할 모델링은 진로성숙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연구 결과, 청소년이 좀더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상담자는 부모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이 진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의 부모 지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 금명자 (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미숙 (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 김봉환 (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손은령 (2001). 진로 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1988). *생활지도: 성장과 적응을 위한 접근*. 서울: 문음사.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장대운, 김충기, 박경애, 김진희 (1996). *청소년 진로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전윤경, 임희경, 송현정, 이기학 (2004). 분리 개별화와 자기주장성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비교 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1), 263-264.
- 정은희 (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Counseling Psychologist*, 12, 117-126.
- Avison, W. R., & McAlpine, D. D. (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9).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In L. Pervin & O. John(Eds.), *Handbook of personality*(pp.154-196). NY: Guilford.
- Bandura, A., Adams, N. E., & Beyer, J. (1977). Cognitive processes mediating behavior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5-139.
- Bandura, A., Barbaranelli, C., Vittorio-Caparara, G.,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 187-206.
- Betz, N. E., & Hackette,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CBT/McGraw-Hill.
- DeRidder, L. (1990). *The Impact of parents and parenting on career development*. Knoxville, TN: Comprehensive Career Development Project.
- Dowd, E. T.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 Dreher, E. & Dreher, M. (1985). Wahrnehmung and Bewältigung von Entwicklungsaufgaben in Juendalter: Fragen, Ergebnisse und Hypothesen zum Konzept einer Entwicklungs und Pädagogischen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Perception of and coping with adolescent developmental tasks...]. In R. Oerter (Hrsg.), *Lebensbewältigung in Juendalter* [Coping in adolescence] (S. 30-61). Weinheim: VCH Verlagsgesellschaft.
- Eccles, J. S. (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585-609.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6). Exploration as a predictor of congruence in adolescents'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9, 201-215.
- Kotrlík, J. W., & Harrison, B. C. (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in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14, 47-65.
- Kracker, B.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 19-30.
- Kracker, B., & Schmitt-Rodermund, E. (2001).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transitions. In *Navigating Through Adolescence: European Perspectives*, J. E. Nurmi (Ed.), (pp. 137-161). New York: Garland.
- Krumboltz, J. D. (1994) Improv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from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In Savickas, M. L. & Lent, R. W(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Implications for science and practice* (pp. 9-31).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ush, K., & Cochran, L. (1993). Enhancing a sense of agency through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34-439.
- Lapan, R. T., Adams, A., Turner, S., & Hinkelman, J. M. (2000). Seventh graders' vocational interest and efficacy expectation patter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 4-16.
- Lapan, R. T., Hinkelman, J. M., Adams, A., & Turner, S. (1999). Understanding rural adolescents' interests, values, and efficacy expecta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 107-124.
- Lauver, P. J., & Jones, R. M. (1991).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career options in American Indian, White, and Hispanic rur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59-166.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pp. 101-127). NJ: Wile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Brown, D., Brooks, L.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 development* (pp. 373-4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S.,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 Litt, M. D. (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9-160.
- Lopez, F. G., Lent, R. W., Brown, S. D., & Gore, P. A. (1996). Role of social-cognitive expectations in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s-related interest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44-52.
- Lusting, D. C., & Strauser, D.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career thou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 2-11.
- McWhirter, E. H., Crothers, M., & Rasheed, S. (2000). The effects of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on social-cognitive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30-341.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O'Brien, V., Martinez-Pons, M., & Kopala, M. (1999). Mathematics self-efficacy, ethnic identity, gender, and career interests related to mathematics and sci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2, 231-235.
- Osborn, D. S.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Otto, L. B. (1984). Bringing parents back i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10, 255-265.
- Palmer, S., & Cochran, L. (1988). Parents as agent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71-76.
-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Powers, S. I., Hauser, S. T., & Kilner, L. A. (1989).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200-208.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Improving your career thoughts: A workbook for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chunk, D. H. (1989). Self-efficacy and cognitive skill learning.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3: Goals and cognitions* (pp. 13-44). San Diego: Academic Press.
- Sebald, H. (1989). Adolescents' peer orientation: Changes in the support system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Adolescence*, 24, 937- 946.
- Wright, L. K. (200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interests, and dysfunctional thoughts on level of career decidedness, and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 2006. 12. 1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25

게 재 결 정 일 : 2007. 5. 15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Jae-Chang Lee

Su-Ri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participants included 245 students from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 set of test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areer Thoughts Inventory, Career Maturity Inventory Attitude Scale) were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maturity. Also,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ere related to career maturity. Parent support had a direct positive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nversely, parent support had a direct negative impact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positive direc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had a negative direct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Key words :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maturity*